

정읍시, 시민 생명 존중문화 확산 앞장

10일 '생명사랑영화제' 개최 영화 '엑시트' 상영 1인가구 어르신에 손편지·정신건강리플릿 발송도

정읍시가 9월을 '생명 사랑의 달'로 지정하고 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읍시는 자살예방의 날(10일)을 맞아 이날 오후 6시 CGV 정읍점 3층 1관에서 생명사랑영화제(I love me)를 개최한다.

자살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공동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날 영화제는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주제로 정신건강의 의

미를 새겨보고 생명존중에 대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지난 5월 위촉된 8개 학교 '샘고생명수호대원' 중 적극적으로 활동한 우수대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이어 삶의 희망을 부여하는 생명사랑 동영상 및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영화 '엑시트(EXIT)'가 상영될 예정이다.

앞서 정읍시 보건소는 9월을 '생명 사랑의 달'로 지정해 지난 7일 오후 1시 내장산 워터파크에서 우울·스트레스 검사와 생명 나무 메시지 작성, 체험활동 등 자살예방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또 2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인 가구 어르신에게 학생들이 손 편지와 정신건강 리플릿을 발송하는 'Love letter' 캠페인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27일까지 정일여중과 확산중 앞에서 등굣길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을 홍보하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생명사랑 영화제에 많은 참여를 통해 마음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읍시민 정신건강 향상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화순군, 친환경목재펠릿 보일러·난방기 설치비 지원 겨울철 난방비 절감·이산화탄소 배출감소 효과 높아

화순군은 겨울철 난방비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높은 친환경 목재펠릿(사진) 보일러와 난방기(난로)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산림청은 지원 사업 대상에 목재펠릿 보일러에서 난방기까지 확대했다.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이다.

지원 신청은 보일러와 난방기를 설치할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따로 없다.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해 지원한다.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1대 설치비는 400만 원이고, 산림청 보급 대상으로 등

록된 제품만 보조금 280만 원(70%)을 지원한다.

난방기(난로) 한 대당 설치비는 150만 원으로 단체표준(SPS-KPIC-A-001-2082) 인증 기준에 적합하여 단체표준 표시를 인증받은 제품만 보조금 105만원(70%)을 지원한다.

목재펠릿이란 목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톱밥이나 폐목재 등을 톱밥 같은 형태로 분쇄, 건조, 압축해 만든 작은 알갱이 모양의 연료를 말한다. 이산화탄소와 대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해 친환경 연료로서 주목받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친환경 보일러와 난방기 설치에 군민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군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2035년까지 단계별 추진 승인 총 사업비 3585억원 투자

군산시가 오는 2035년 목표로 마련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8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도시발전예에 따른 생활 수준 향상과 새만금 지역의 상수 수요량을 예측하고, 수도시설의 체계적인 확충 정비 등을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변경수립 고시했다.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 단계별(5년 주기)로 추진되며, 현재 98.5%인 상수도 급수보급률을 99.6%까지 높인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사업은 총사업비 3585억원을 투자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대야배수지 1000t 증설, 서수배수지 200t 신설 계획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나운배수지 1만t 증설, 출수 불량 해소를 위해 가압장 및 관로 42km 신설 등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남원시, 전북형 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완료 운봉면 동편제마을에 30억 투입 숙박·음식체험 시설 등 갖춰

남원시는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인 운봉읍 동편제마을에 대한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4일 준공식을 했다.<사진>

이 사업은 동편제마을을 농촌관광의 모델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30억원을 투입해

12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음식체험 식당 등을 갖췄다.

이 곳에서는 판소리 체험, 소시지 가공 체험, 역사 현장 산책 등을 할 수 있다.

동편제마을은 동편제의 발상지로 많은 명장을 배출한 국악의 성지일 뿐만 아니라

조선 태조가 왜구를 전멸시킨 황산대첩 승전지이기도 하다.

주변에 지리산 둘레길도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이 없어 관광 자원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산 운봉고원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역사 문화를 접목해 남원 농촌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익산시, 추석 연휴 '순환형 시티투어' 운영 익산역 출발 원광대·미륵사지·왕궁리 유적 등 하루 7회

익산시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추석(13일) 당일을 제외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순환형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순환형 시티투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익산역-원광대학교-고스락-교도소세트장-미륵사지-왕

궁리유적-보석박물관-익산역'을 하루 7회 순환한다.

탑승료는 1일 성인 4000원, 단체(20인 이상)는 3000원 등이다.

1일권으로 하루 동안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코스 중 고스락은 4000여개 향아리가 각

각의 이야기를 품고 있어 고즈넉함을 느껴 볼 수 있다.

교도소세트장에서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죄수복을 입고 인증샷을 남길 수 있다.

또 미륵사지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흥미진진한 해설을 들으며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과 국립익산박물관을 둘러보면 백제의 멋을 느낄 수 있다.

왕궁리유적에서는 연휴 기간 민속놀이와 전통복식을 입는 어좌포토 체험, 수막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보석박물관에서는 11만점 이상의 진귀한 보석과 원석을 둘러볼 수 있고 화석과 공룡이 있는 화석전시관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티투어 이용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시티투어를 타고 익산의 관광명소를 둘러보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광양시 구봉산 전광대 인근 관광단지 추진 광양커뮤니티센터서 3차 주민 설명회 갖는다

광양시가 구봉산 전광대 인근에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3차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주)LF와 시가 지난 달 20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자,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설명회 참석자 대부분이 사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으며 땅 소유주들을 주축으로 보상이 선정에 관심이 높았다고 두차례 설명회를 평가했다.

2차례의 설명회에 참석한 골약지역한 단체의 대표는 "우리 지역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환영하며, 지주, 지역민, 시, LF가 서로 잘 협의해 사업이 꼭 성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는 "토지 소유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만큼 사업추진이 잘 이뤄지도록 모두가 지원해야 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지주 대표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구봉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야로 토지의 보상을 정할 것이 아니라, 체육시설이나 관광단지로 전환해 토지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LF 개발담당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토지 가격이 평가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에 주문할 것이다"면서 "사업요건인 3분의2 이상 토지 취득이 완료되면 지역민들을 위한 협력사업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니 사업 시작이 가능하도록 지주와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시 구봉산관광단지조성TF팀 김상균 팀장은 "서울, 경기 등 설명회 참석을 못 하는 원거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 진행 일정과 가격 등에 대한 문의가 계속 오고 있으며,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